

甲

리베이트 챙긴 뒤 “가짜 차용증 내라”
뒤통 받아 아파트 구입·룸살롱 출입

乙

공사비 부풀려 비자금 모아 상납
부도 위기 까지 몰려 심각한 고통

‘리베이트’ 챙긴 뒤 가짜 차용증 작성 요구, ‘친인척 계좌 통해 비자금 관리’, ‘노골적인 금품 및 술 접대 요구’, ‘고가 아파트 중도금 대납’, ‘고급 승용차 구입’ …

광주지검이 적발한 대기업 직원의

‘갑(甲)질’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비리가 결국 ‘갑’의 횡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이들 대기업 직원들은 연봉보다 최고 4배가 넘는 뒤통을 받아 고가 아파

건설 대기업 직원들 ‘횡포’ 하도급자의 ‘눈물’

광주지검, 5개 건설사 임직원 6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트를 구입하고 룸살롱을 드나드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거꾸로 ‘을’인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검찰 수사는 부도 위기에 몰린 한 지역업체 사장의 하소연에서 시작했다.

대기업 건설사 직원 최모(49)씨는 지난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상납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게 수년 만에 연락해 통장에

입금된 2억원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 하도록 종용했다. 가짜 차용증까지 작성한 최씨는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8개 업체로부터 2억2810만원의 뒤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건설사 직원 외주팀 과장 송모(40)씨는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억원을 누나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했다. 누나는 출처를 묻는 검찰에게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5

만원권 1억1000만원이 든 박스를 주었다”고 둘러댔다.

2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못친 돈으로 입금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불 속에 숨겨두고 조금씩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현금으로 입금된 탓에 출처를 밝히는데 한계를 느낀 검찰은 결국 송씨가 받은 돈 중 662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의 건설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상납

받은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은 ‘직원별 금액 배분 관련 서류’까지 발견되기도 했다. 사실상 이러한 비리가 조직적·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하도급 업체와 대기업 건설사 사이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는 39억원의 비자금을 모은 A사 도어 영업팀 직원 7명은 10여여원을 대기업 직원들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9여원은 자신들의 주택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가 이번 수사에서 들

검찰은 지난 9월 A사를 압수수색한 뒤 두 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자 12명이 보관하고 있던 뒤통 7억여원을 추정,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1일 공사 계약·권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49)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5곳 가운데 1곳은 도급 순위 10위 안에, 나머지 4곳은 100위 안에 드는 대형업체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충장로 우체국 앞 구세군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길에 설치된 광주 구세군교회 자선냄비 앞에서 한 여학생이 버스카드를 이용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고 있다. 올해 자선냄비 목표 모금액은 3000만 원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군대간 남친 만나게 해주겠다” 이벤트 미끼

순천서 여성 납치 강도 2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1일 연인끼리의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속여 여성을 납치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납치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공범(24·사망)과 함께 지난 6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순천에서 피해자(23·여)에게 “납자친구가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후배인 내가 대신 데리러 왔다”며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피해자가 사는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 2300여만 원 등을 훔치고, 유인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룸메이트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장기를 팔아 1700만원가량 빚을 갚고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하겠다는 공범을 만나 범행을 제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은 사건 발생 5일 후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故 박경조 경위 흉상 헌충시설 지정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한 박경조 경위 흉상(사진)이 국가 헌충시설로 지정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박경조 경위 흉상이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가 헌충시설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흉상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민 보호를 위해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안 군민과 해양경찰 직원 성금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건립됐다. 흉상은 높이 2m, 폭 1.6m 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흉상이 국가 헌충시설로 지정돼 해양경찰 주권수호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위는 지난 2008년 9월 신안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순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업체 근로자 총파업

위탁업체 부당함 호소

광주시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체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11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서구청 재활용·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인 A산업개발 소속 근로자 22명은 오는 12일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민간위탁 업체와 서구청이 여전히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구청은 해당 업체를 보호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불법·부당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일부터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광주 서구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경태 전 구례군수 수사의뢰

기부행위·사전운동 혐의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경태 전 구례 군수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전 전 군수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구례 소재 자택과 마을회

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거 때 도와줄 것을 호소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전 군수는 마을회관에는 주민 초대로 부인과 함께 간 것이고 별도로 음식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자택에서 친척, 오랜 지인들과 식사할 때도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야밤 공터에 묶인 투견 출처 달아나



○…어두운 밤 공터에 묶여 있던 투견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11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하모(50)씨는 지난 10월 20일 새벽 2시께 나주시 석현동 A화물주차장 공터에서 나모(54)씨가 키우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투견 핏볼테리어 1마리를 자신의 EF소나타 승용차 뒷 좌석에 싣고 달아났다는 것.

○…개 사육업을 하는 하씨는 투견이 평소에는 일만 강아지처럼 온순하다는 습성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하씨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

/나주=손영철기자 ycsn@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1월 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족)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은 추후 통지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CJ 엘로비전

hello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제안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디지털tv 국내 최고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인터넷 국내 최고 가용스피드 초고속 인터넷 방송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

전화 통신요금 할인 혜택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2 헬로tv 미니팩 고객납품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속속 골라보세요!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 격
골프(소모주목)	골프장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NBC ADVENTURES, Discovery	~3,000원 ~2,000원(국민가) (VAT 포함 3,3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S	~3,000원 ~2,000원(국민가) (VAT 포함 3,300원)
키즈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KBS 3kids, Disney Junior	~3,000원 ~2,000원(국민가) (VAT 포함 3,3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to	~3,000원 ~2,000원(국민가) (VAT 포함 3,300원)

※ 가입자는 지령에 따라 주요 채널 이외에도 추가 채널이 존재합니다.

가입문의 1855-1008

www.cjhellotv.com